



# 코로나에 지친 예술가와 마을의 상생 제주 공연예술 활동 인구 대비 최다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센터 '예술공감 프로젝트' 진행 지난 3일 4·3공연 첫 무대  
건입동 배경 무관중 공연 동영상 채널로 홍보 공유



지난 3일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에서 이루어진 우상임씨의 아코디언 연주 '잠들지 않는 남도'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지난 3일, 제주4·3당시 수용소로 활용했던 제주시 건입동 주정공장 옛터. 생과 사를 오갔던 제주 사람들의 기억이 배어있는 이곳을 제주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찾았다. 피아니스트 우상임·김경택, 소프라노 김지송, 색소폰 연주자 고결, 춤꾼 안지석씨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4·3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쳐냈다.

청중없이 치러진 이번 공연은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외솔)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위원장 강두웅)와 손잡고 기획한 '도시재생 예술공감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대가 끊긴 상황에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건입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건입동 지원센터는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에 참가할 예술가를 수시로 접수했다. "건입동 마을을 위한 진정성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며 참가 신청 양식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그 결과 3일 기준 11팀이 공연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이 건입동을 배경으로 원하는 날짜에 공연을 하면 건입동 지원센터에서 섭외한 제작진들이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아 동영상 채널(유튜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출연료가 주어진다. 무대가 되는 장소는 출연진들이 작품 내용과 어울리는 곳을 직접 발굴함으로써 예술가와 지역이 상생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첫 무대 역시 72주년 4·3을 맞는 4월 3일에 열린 만큼 4·3유

적지로 정해졌다. 이날 우상임씨는 아코디언으로 '잠들지 않는 남도'를 연주했고 소프라노 김지송씨는 김경택씨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형이사랑'을 불러냈다. 고결씨와 안지석씨는 '애월'을 준비했다.

건입동 지원센터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 지난 3일 공연 영상을 5분40초 분량으로 편집해 공유하고 있다. 고결·안지석씨의 '애월'도 조만간 유튜브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외솔 센터장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방안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예술가들과 함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며 건입동의 숨겨진 장소를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9문예연감 분석 결과 제주는 양악 활동 두드러져 연극은 인구 대비 전국 2위 시각예술도 서울 다음 많아



제주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축제인 2019제주국제관악제. 제주는 양악, 연극 등 인구 대비 공연 예술 활동이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제공

제주지역 공연예술 활동 건수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시각예술 활동 건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8년 한 해 동안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국악, 양악, 연극, 무용) 등 6개 분야별 창작 발표 활동 현황과 통계자료를 분석 수록한 '2019문예연감(2018년도 기준)'에 실린 내용이다.

최근 발간된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문화예술 활동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총 5만3062건으로 2017년 4만9382건 대비 3680건 증가했다. 문학 분야는 1만3151건(↑996건), 시각예술 1만5192건(↑573건), 공연예술 2만4719건(↑2111건)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문화예술 활동 건수는 총 77.0건으로 전년 대비 5.1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공연예술 47.7건(↑4.0건), 시각예술 29.3건(↑1.1건)으로 조사됐고 경기(35.5), 인천(51.7)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인구수 대비 문화예술 활동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 분야의 지역별 현황 총 3만9911건 가운데 1만4093건이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에서 4639건 개최돼 수도권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많았고 부산(2812건), 대구(2222건) 등 광역시가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문화예술 활동 건수를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나누어 인구 대비 현황을 분석했을 때는 서울이 144.3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 130.1건, 강원 116.7건, 광주 104.4건, 전북 92.9건, 대구 90.3건 순으로 이어졌다.

분야별로는 시각예술의 경우 서울(64.6건), 제주(44.4건)가 가장 많았고 광주와 강원이 각각 4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연예술은 제주가

85.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79.7건, 강원 76.5건으로 파악됐다. 제주는 특히 양악이 46.0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공연 건수를 기록했다. 강원은 인구 10만명 당 연극 공연 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주 26.1건, 대전과 충남 18.4건, 서울 18.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 대비 문화예술 활동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인구 10만명 당 연 35.5건이었다. 공연예술에서도 경기도가 22.5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각예술에서는 세종이 10.5건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총 문화예술 활동 건수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듯 보였으나 인구 대비 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제주, 강원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쏠리

### 창의예술교육랩 사업 선정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0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은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예술가, 예술교육자와 연계해 학교, 시설,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보급·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예재단은 이번 선정에 따라 2019년 출범한 '창의예술교육발전소'를 확산조직으로 재편한다. 이곳에서 온라인 유통서비스를 통해 지역문화자원 '삼다(三多)'를 주제로 돌(생태), 사람(인문), 바람(과학) 등 융합 개발된 창의교육콘텐츠를 교육자, 청소년과 일반인, 교육단체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064)800-9172.

### 만화·웹툰 강사 수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만화 인력 양성을 위한 제주웹툰캠퍼스에서 만화·웹툰 관련 분야 교육 강사로 활동할 강사들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돼 서귀포시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에 구축된 제주웹툰캠퍼스는 강사풀에 등록된 강사에게 제주웹툰캠퍼스뿐만 아니라 청년장애인웹툰아카데미 등 도내 웹툰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기관과 연계해 제주도내 웹툰 산업 양성을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강사풀 등록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4)766-0710.

### 생활문화예술 활동 공모

제주시는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를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고 6월~11월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법인)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 전시회, 연주회, 연극, 공연 등 행사성 사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강사비, 문학지 발간 등 비행사성 사업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자체나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유사·중복 사업도 제외된다.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고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16일까지 이루어진다. 문의 064)728-2714.

## 제주문예재단 인권영향평가 첫 실시

기관운영·주요사업 나눠 달성률 각 70.1%, 64.7%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처음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문예재단은 지난해 12월 중무직에서 인권경영선언을 공표했다.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원을 포함 7명으로 인권경영위원회도 꾸렸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그 연장선에서 한국경영인증원 평가위원(외부)과 경영지원팀(내부) 주관으로 지난 2월 27일~3월 31일 진행됐다. 문예재단은 담당자 워크숍, 인터뷰와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기관운영, 주요사업으로 나눠 평가에 나섰다. 기관운영은 인권경영체계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과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소비자인권 보호, 직장 내 인권보호 등 11개 분야 35개 항목 168개 지표가 적용됐다. 이 중에서 직장 내 인권보호는 최근 문예재단에서 불거졌던 성희롱과

갑질 사안을 고려해 추가된 분야다. 주요사업은 예술지원사업 1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해 4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벌였다. 기관운영 점검 결과 168개 지표 중에서 미실시 16개, 보완 필요사항 46개, 정보없음 4개, 해당없음 41개로 나타났다. 달성률은 전체 평균 70.1%였다. 주요사업의 경우엔 인권경영확산, 공정운영, 부당요구금지, 창작물 보호 등 4개 항목에 걸친 달성률이 64.7%로 집계됐다. 문예재단 측은 "앞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1차 인권경영위원회 열어 권고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인권경영의 방향을 그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축**  
수 상  
자랑스러운 애중인 상

신영민  
제1회 자랑스러운 애중인(애월중학교) 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곽금초등학교 제24회  
회장 김문자 외 회원일동

**축**  
취 득  
경호보안학박사

강현  
(부: 강전욱 · 모: 김봉희의 자)  
경호보안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사촌형  
(강윤호, 강윤석, 강용준, 강경록)

**축**  
취 임  
서귀포농협 상임이사

허상보  
서귀포농협 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  
회장 고정택 외 회원일동

**축**  
수 훈  
보국포장

고경현  
(부: 고흥추 · 모: 김옥순)  
군생활 31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전역과 함께 보국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사촌 형우회 일동